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중로구 율곡로 64 Tel 02.765.3011-3

12 2018 | Vol. 560

설산의 붉은 가지(雪山の赤い枝)
Photo : SEOL YOUNGAH_도야마_제4회 한일포토콘테스트 주한일본대사관상



제7회 대학생일본어연극대회

제7회 대학생일본어연극대회 본선이 11월 17일(토)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예시에 접수된 12팀 중 5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일본어 실력과 연기를 선보였다. 개회식에서는 주최 측을 대표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의 한국어 축사와 추규호 사단법인 한일미래포럼 대표(전 주영국대사)의 감사와 격려의 인사말이 있었다.

본선에 진출한 5팀 모두 뛰어난 실력으로 열연을 펼친 가운데, 배화여자대학교 비즈니스일본어과 ‘배화라즈카’팀이 그랑프리를 차지했다. 김영민 심사위원장(동덕여자대학교 일본어과 교수)은 “본선 진출 5팀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든 뛰어난 실력을 갖춘 것에 놀랐으며, 오랜 시간 준비하고 노력한 학생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총평을 남겼다.



재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첫 내한공연

오부치-김대중 일한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하는 ‘2018 서울국제음악제’ 개막공연으로 재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첫 내한공연이 11월 2일(금)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되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는 개막공연에 참석한 후, 리셉션을 열어 아티스트와 환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이번 공연을 통해, 오우에 에이지(大植榮次) 오사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명예 지휘자와 함께 일본의 대표적인 작곡가 중 한명인 도야마 유조(外山雄三)의 랩소디(Rhapsody) 등을 연주했다. 또 한국의 신에 피아니스트 문지영과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며 양국 간의 문화교류로 다져진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K-POP에서 시작된 한국과의 만남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어 지금은 'JOAH'라는 한국의 최신 트렌드를 발신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다나카 유이 씨. 이 사이트에서도 소개된 세련되고 아담한 카페에서 현재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교류의 변화와 양상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JOAH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JOAH는 'JOAH를 통해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된다'를 컨셉트로 한국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한국의 최신 트렌드를 발신하는 사이트입니다. 한국 패션, 미용, 화장품부터 맛집과 K-POP 아이돌 정보, 한국 거주자라야 알 수 있는 한국의 연애 사정까지 한국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nstagram, Twitter, Facebook, LINE 계정이 있으며, 10명의 일본인과 한국인 라이터가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JOAH의 강점은 한국에 사는 직원이 실제로 발로 뛰며 취재한 트렌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 체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처음에는 K-POP이었습니다. K-POP을 좋아해서 음악을 듣거나 여러 번 한국 여행을 하기도 했지만,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져서 2013년부터 워킹홀리데이로 1년간 한국에 체재했습니다. 그 후 지금의 회사에 입사하여 한국사무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한국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 일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JOAH」について簡単に教えてください.

JOAH(ジョア)は、「JOAHで韓国をもっと好きになる」をコンセプトに韓国在住のスタッフが韓国の最新トレンドを発信するサイトです。韓国ファッション・美容・コスメからグルメスポットやK-POPアイドル情報、韓国在住スタッフだからこそ知っている韓国の恋愛事情まで韓国に関する様々な情報を発信しています。Instagram, Twitter, Facebook, LINEのアカウントがあり、10人の日本人・韓国人ライターが記事を書いています。JOAHの強みは、韓国に住んでいるスタッフが、実際に足を運び取材をしてトレンドを発信しているところです。

韓国に滞在するようになったきっかけは.

最初はK-POPでした。K-POPが好きで音楽を聴いたり、韓国に何度も旅行に行ったりしましたが、韓国語も勉強したくなり、2013年からワーキングホリデーで1年間韓国に滞在しました。その後、今の会社に入社し、韓国事務所で仕事を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もともと韓国が好きだったので、自らも感じる韓国の魅力を発信する仕事ができているのが嬉しいです。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의 여행 목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1년 전까지는 한국 드라마나 K-POP을 계기로 한국을 좋아하게 되어, 한국을 방문했다는 사람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한국 문화 폭이 넓어져서 한국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 한국 화장품을 좋아하는 사람 등 좋아하는 이유가 다양해졌습니다. 또, K-POP은 중고생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한국 음악'이라는 카테고리가 아니라, 여러 음악 장르 중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으로서 더욱 친근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40・50대 중년층은 한국 드라마나 한국 음식 같은 특정한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지만, 10・20대 젊은 층은 한국의 센스와 감성에 이끌려서 한국에 대해 동경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굳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일본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한국 카페를 방문해 보고 싶은 사람, 진짜 한국 음식을 맛보고 싶은 사람, Instagram 등 SNS를 통해 직접 한국 콘텐츠를 발신하고 싶은 사람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最近, 한국을 방문하는日本人観光客の旅の目的が変わってきていると思いますが、いかがですか。

1年前までは、韓国ドラマやK-POPをきっかけに韓国が好きになり、韓国を訪問したという人が多かったと思いますが、最近では韓国というカルチャー自体の幅が広くなり、韓国のファッションを好きな人や韓国コスメを好きな人など韓国を好きな理由が多様化しました。また、K-POPは中高生の間で、とても人気を集めています。「韓国の音楽」というカテゴリーではなく、様々な音楽ジャンルの中で自分が好きな音楽として、より身近な存在になってきています。

40代・50代の中年層は韓国ドラマや韓国料理といった特定の韓国文化を好きになることが多いですが、10代・20代の若者層は韓国の持つセンスや感性に惹かれ、韓国に対する憧れまでも出てきています。また、今まではわざわざ韓国を訪問しなくても、日本で楽しめるコンテンツを好きな人が多かったですが、最近では韓国のカフェを訪れてみたい人や本場の韓国料理を味わってみたい人、InstagramなどのSNSを通じて、直接韓国コンテンツを発信してみたいと思う人等が増えています。

20代の女性を対象に海外旅行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を行った結果、行きたい海外旅行先として欧州を希望する人が多かった反面、実際に訪れた旅行先としては韓国がもっとも多かったのです。地理的に近く、経費も安く、洗練されたカフェやコンテンツ、おいしい食べ物などあらゆる要素が旅行先として人気を集める理由となっています。

JOAHを主に利用するユーザー層は。

年齢は10～40代以上まで幅広い年代に利用されています。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해외여행 관련 설문조사 결과, 가고 싶은 해외 여행지로서는 유럽을 택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실제로 방문한 여행지로서는 한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비도 저렴하며 세련된 카페와 콘텐츠, 맛있는 음식 등 모든 요소가 여행지로 인기를 끄는 이유입니다.

JOAH를 주로 이용하는 층은.

연령은 10~40대 이상까지 폭넓은 연령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별은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고, 한국 음식, 패션, 화장품, K-POP에 관심과 흥미를 보이는 여성이 많습니다.

어떤 정보를 발신하고 있나요.

JOAH의 컨셉트는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한국 정보를 발신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도 한국의 매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행지를 고려할 때, JOHA 사이트를 보고 한국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현지에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매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행지 정보로서 SNS를 통해 서울의 하늘 사진을 올리기도 하는데, 한국을 동경하는 젊은이들은 '지금'의 한국의 모습을 아는 것만으로도 설렌다고 합니다. 또 Instagram의 라이브 기능을 사용해서 1시간 동안 한국 축제를 소개하면서 즉석에서 질문에 답하는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유저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발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앞으로는 일본의 매력을 한국에 전하는 인바운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일본의 트렌드를 한국에 발신하는 사이트를 준비 중이에요.

또, 개인적인 목표로는 나 자신이 한국을 좋아하게 되고 한국을 알게 되면서 시야와 생각이 넓어지는 등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좋아하는 것을 일로 할 수 있고,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유학이나 취업할 때 도움을 주거나, 일본에서 한국을 널리 알리는 방법도 생각하고자 합니다.



性別は圧倒的に女性が多く、韓国のグルメ、ファッション、コスメ、K-POPに興味や関心がある女性が多いです。

どのような情報を発信していますか.

JOAHのコンセプトは韓国を好きな人に対して韓国情報を発信することはもちろん、韓国にあまり関心がない人にも韓国の魅力を伝えたいということです。旅行先を考えている時に、JOHAのサイトをみて韓国の魅力に気づいてもらえるよう、現地にいるからこそわかる魅力を発信しています。旅行地の情報としてSNSを通じてソウルの空の写真をアップロードしたりしていますが、韓国に憧れる若者たちは「今」の韓国の様子を知るだけでわくわくするといいます。また、Instagramのライブ機能を使い、1時間程度、韓国のお祭りを紹介しながらその場で質問に答える放送を行ったこともあります。このように素早く、リアルタイムでユーザーが必要とする情報を発信できるようにしています。

今後の目標は.

今後は日本の魅力を韓国に伝えるインバ운드事業を広げたいです。例えば、今、日本のトレンドを韓国に発信するサイトを準備中です。

また、個人的な目標としては、自分自身が韓国を好きになり、韓国を知ったことで、視野や考え方が広がるなど人生にとってすごくプラスになりました。幸いに好きなことを仕事としてできて、発信も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今後は、韓国が好きな人が留学や就職をするときにサポートしたり、日本で韓国を広める方法も考えていきたいです。

오사카부 기시와다시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자매도시 교류

기시와다시(岸和田市)는 오사카부 남부에 위치하며,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자동차와 전철로 30분, 오사카 시내에서도 30분 이면 도착할 수 있다. 기시와다시는 바다에서 산에 걸쳐 가늘고 긴 형태를 띠고 있으며 임해부, 평야부, 구릉부, 산지부로 나뉘어 있다. 풍요로운 자연과 온화한 기후로 인해 수산물과 농산물이 풍부하고 많은 역사적 유산이 있다. 또 전통행사인 '단 지리 마쓰리(だんじり祭り)'는 일본에서도 유명하며, 해외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자매도시 교류

기시와다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있다. 영등포구 의회 의원이 1992년 오사카부 내 지자체 가운데, 일한 우호 의원연맹을 설립하고 있던 기시와다시 의회로 일본의 지방자치를 배우기 위해 방문한 것을 계기로 교류가 시작되었다. 2002년 10월 31일 자매도시 체결 이후, 행정에 머물지 않고 문화, 스포츠 그리고 청소년 교류로 확대되며 시민 간에 서로 친분을 쌓고 있다.

문화 교류는 기시와다시 '시전 수상 작품전'과 영등포구 '목련전'에 격년으로 번갈아 문화 단체의 작품을 합동 전시하고 있으며, 이 때 문화 시찰단을 받아들여 문화단체 간 교류와 친목을 다지고 있다.

스포츠 교류는 격년으로 KIX 센슈 국제 마라톤과 서울국제마라톤에 각각 선수를 상호 파견하고 있다. 청소년 교류는

기시와다 시립 산업고등학교와 영등포구 한강미디어고등학교가 자매학교를 체결하고 상호 교류 중이다. 서로 학교를 방문하여 필드워크나 홈스테이 등을 통해 다른 문화와 생활 습관을 체험하면서 국제 감각을 몸에 익힌 인재육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

기시와다시의 경관

기시와다시는 바다에서 산에 이르기까지 사시사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조카마치(城下町, 성하마을)다. 선인들이 가꾼 경관을 차세대로 계승하기 위해 '마음에 남는 경관 자원 발굴 프로젝트'를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미리 설정한 '수목' '거리' '수변' 등의 테마에 응모한 경관 자원 가운데, 특히 뛰어난 51건을 '마음





에 남는 경관 자원'으로 지정했다. 이 중 일부를 소개한다.

• 기시와다성

기시와다시의 상징으로 많은 시민에게 사랑 받고 있는 기시와다성(岸和田城)은 기시와다의 대표적인 경관이라 할 수 있다. 1585년 본격적인 성곽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1640년 오카베 씨(岡部氏)가 입성한 이래, 13대에 걸쳐 기시와다를 통치했다. 천수각은 1827년 벼락으로 소실되었으며 1954년 중건되었다. 또 시게모리 미레(重森三玲氏)에 의해 조성된 정원인 하치진노니와(八陣の庭)와 함께 2014년 일본의 명승지로 지정되었다. 그 당시부터 남아 있는 돌담과 해자는 품격과 기품을 유지하고 있으며, 벚꽃이 필 무렵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등 기시와다다운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오사카(大阪)와 와카야마(和歌山)를 잇는 기슈카이도(紀州街道)에 위치한 '혼마치(本町)'는 성하마을로 번성했으며, 전통적인 가옥이 늘어선 경관은 기시와다의 문화와 역사를 느낄 수 있다. 이 혼마



치가 단지리마쓰리(だんじり祭り)에서 사용하는 밧줄은 기시와다 번주가 하사했다고 한다.

• 구메다이케

산에 있는 지역에는 한가로운 농촌 풍경이 남아있는데, 특산물인 가네치카(包近) 복숭아와 가지의 일종인 센슈미즈나스(泉州水ナス), 온수(温州) 귤과 무화과 등 양질의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다. 이들 농업에 필요한 수원으로 오사카부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구메다이케(久米田池)도 볼 수 있다. 738년 승려 교키(行基)가 축조했다고 전해지는 둘레가 약 2.7km인 인공연못으로 2015년 세계관개시설 유산에 등재되었다. 또 1년 내내 다양한 야생 조류를 볼 수 있어 '새의 국제공항'이라 불리며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지역 주민에 의해 수년간 지켜진 광대한 구메다이케가 계절과 시간 별로 표정을 바꾸며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한다.

• 산과 바다

기시와다시 남부의 산간부에서는 온욕 시설 '이요야카노사토(いよやかの郷)'와 단풍의 명승지 '우시타키산 다이이토쿠지(牛滝山大威徳寺)'의 정적, '이치노다키(一の滝)'를 비롯해서 낙차가 있는 폭포와 우시타키가와(牛滝川) 계류, 이즈미카쓰라기산(和泉葛城山)의 너도밤나무 숲 등 풍요로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다. 시의 중앙부에는 고노야마(神於山)를 원류로 하는 하루키가와(春木川)가 흐르고 있으며, 이러한 산의 혜택을 받은 신선하고 맛있는 해산물은 오사카부 제일의 어획량을 자랑하며, 기시와다 시내의 음식점에서 즐길 수 있다. 정월 초하루 아침에 그 해의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며 어선에 걸린 대어기가 무수히 휘날리는 풍경은 바다와 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연과 전통, 문화를 지닌 기시와다만의 경관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경관이란 눈에 보이는 경치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서 이루어진 역사와 문화, 나아가 사람들의 인상과 추억 등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마음에 남는 경관 자원 발굴 프로젝트'에서 발굴된 경관 자원에는 각 응모자의 에피소드가 적혀 있다. 이런 기시와다의 뛰어난 경관을 접한 모든 분이 각자 새로운 에피소드를 갖게 되었으면 한다.

(집필: 기시와다시, 협력: CLAIR, Seoul)

서민의 술에서 시간과 정성을 담은 개성 있는 일본 소주로

니혼슈(청주)에 비해 조금은 낮은 일본의 소주. 지난 11월 1일, 후쿠오카의 소주 관련 세미나와 시음회가 나카무라 아카데미에서 개최되었다. 후쿠오카현 주조조합 소주부회에서 5개 기업(니시요시다, 기타야, 시노자키, 에비스, 켄조)이 참가한 가운데, 후쿠오카현의 소주를 소개하고 이에 어울리는 요리 소개와 시음회가 개최되었다. 특히, 나카무라 데쓰(中村 哲) 나카무라 아카데미 이사장은 '일본 소주의 기초 지식'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소주 문화와 한국의 식문화 교류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번에 소주 세미나와 시음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는.

2009년 서울에 나카무라 아카데미를 설립한 이후, 한국을 매월 방문하고 있어 적어도 100회 이상은 온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니혼슈에 비해 일본 소주를 접할 기회는 별로 없었는데, 최근 1~2년 사이에 일본 소주가 시중에 판매되기 시작한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일본 소주의 존재감이 조금씩 드러나기는 했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 소주를 마셔본 사람 가운데, 맛있다는 평이 늘면서 이것이 기회라는 생각에 일본 소주를 알리는 세미나와 시음회를 개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중에 판매되는 소주 가격이 일본에서 판매되는 소주 가격보다 비싸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니혼슈보다 일본 소주가 더 저렴합니다. 니혼슈는 보관 기간이 짧아 병을 따면 바로 마셔야 하지만, 증류수인 소주는 얼마간 보관할 수 있어 '킵 보틀 서비스(Keep Bottle Service)'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일본 소주를 맛있게 마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와인처럼 병에 붙은 라벨을 보고 소주의 원료(고구마, 보리, 쌀 등)와 증류 방법(상압증류, 감압증류), 누룩의 종류





(흰 누룩, 검은 누룩, 노란 누룩), 보관 용기의 종류 (탱크, 항아리, 나무통), 저장 기간을 이해한 다음 소주를 음미하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소주를 마시는 여러 가지 방법(오유와리(더운물로 희석하는 방법), 온 더 록(얼음에 타 먹는 방법), 미즈와리(차가운 물로 희석하는 방법), 츠하이(탄산수로 희석하는 방법))을 시험하면서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소주에 어울리는 일본요리를 함께 즐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스시와 사시미에는 섬세한 생선의 맛을 방해하지 않는 담백한 쌀 소주를, 가쿠니(돼지고기 조림) 같은 진한 맛의 조림 요리에는 독특한 맛과 향을 지닌 고구마 소주를 추천합니다.

한국인과 한국요리에 어울리는 종류가 있다면.

일본 소주를 처음 마시는 한국 분께 추천하고 싶은 것은 맛과 향이 비교적 덜 강한 보리 소주입니다. 그 다음으로 고구마 향이 살아있는 고구마 소주, 다음으로 깔끔한 맛을 지닌 쌀 소주를 순서대로 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소주와 일부에게만 사랑받는 개성 있는 소주 등 다양한 소주의 맛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니혼슈에 비해 소주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데, 일본에서는 어느 쪽이 더 인기가 있나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소주보다 니혼슈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전에는 니혼슈를 많이 마셨지만, 2005년부터 생산량이 늘면서 소주를 더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대기업 소주만 팔리고 소규모 양조장의 소주는 전혀 팔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가고시마의 소주 제조 업체인 모리이조우(森伊蔵)나 구로키리시마(黒霧島) 같은 개성 있고 작은 양조장에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든 소주가 입 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학 기술이 더해지면서 일본 소주의 품질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민의 술이라며 니혼슈에 비해 급이 낮은 술로 여겨지던 소주가, 당질과 퓨린(Purine)이 적다는 건강상의 이점과 품질 향상으로 인해 일본인이 가장 즐겨 마시는 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소주를 즐기게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나카무라 아카데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일본요리의 기술이지만, 손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요리기술을 그대로 재현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소주는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전해졌지만, 일본이라는 섬나라에서 독특한 변화를 이루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장점을 살리면서, 한국인이 선호하는 소주 마시는 법에 따라 변화해 갔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일본요리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그 지역에 맞게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풍광명미한 마쓰시마



마쓰시마정(松島町)은 도호쿠 지방 미야기현(宮城県) 해안부의 중앙에 있으며, 센다이시(仙台市)에서 동북으로 약 20km에 위치한다. 기후는 태평양 측 기후에 속하며, 연평균 기온은 11°C~12°C로 비교적 온난하고, 도호쿠 지방에서도 강설량이 적은 곳이다. 마쓰시마는 히로시마현 미야지마(広島県 宮島), 교토부 아마노하시다테(京都府 天橋立)와 나란히 일본 삼경 중 한곳이자, 일본 유수의 관광지로서 특별명승, 현립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 국보 즈이간지(瑞巖寺) 등 문화유산이 곳곳에 남아 있는 역사 마을로서 연간 약 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산업은 관광업을 비롯한 농업, 어업, 상공업 등 다양한 산업이 균형 있게 발달하고 있어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마쓰시마의 관광과 문화

신칸센과 재래선을 갈아타고 도쿄에서 마쓰시마까지 약 2시간 정도다. 마쓰시마만에 크고 작은 260여 개의 섬이 떠 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마쓰시마는 예로부터 우타마쿠라(歌枕の地, 와카(和歌)의 소재가 된 명승지)로 사랑받고 있다. 약 400년 전 센다이 번주인 다테마사무네(伊達政宗)가 황폐한 절을 다시 세우고 국보 즈이간지를 지어, 다테가의 개인사찰로서 변영했다. 국보 즈이간지는 다테 마사무네가 세세한 부분까지 고집한 호화로운 건조물이다. 2008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헤이세이의 대수리'가 이루어져 대대적인 복원 작업을 했으며, 올 6월 드디어 랫케이호요(落慶法要)라는 축하 의식이 거행되었



다. 또 즈이간지 옆에 있는 엔쓰인(円通院)은 열아홉에 요절한 다테 마사무네의 적손인 다테 미쓰무네(光宗)의 사당이 있다. 경내에는 일본 고유의 정원 양식인 가레이산스이(枯山水)로 조성된 마쓰시마만의 섬을 표현하는 매우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 매년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마쓰시마 단풍 라이트 업'이 개최되는데, 정원과 붉게 물든 단풍 등이 조명을 받아 선명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즐길 수 있다.

그 외에도 육지와 후쿠우라지마(福浦島)를 잇는 252m의 붉은 색 다리인 후쿠우라바시(福浦橋)는 일명 '만남의 다리'라 불리며, 좋은 인연을 만나는 운이 좋은 다리로서 인기가 있다. 이처럼 마쓰시마만의 섬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유람선 등 마쓰시마를 즐기는 방법은 다양하다.

태고천천 마쓰시마 온천

2007년 탄생한 천연온천 '태고천천 마쓰시마 온천(太古天



泉 松島温泉)'은 약 1억 년 전 지층에서 솟아나는 온천이라 이런 이름이 붙었으며, 촉촉한 수질이 특징인 미인탕으로 유명하다.

환경성, 관광청, 경제산업성, 내각부가 후원하는 온천지 활성화를 추진하는 국민 참가형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에 의한 '온천 총선거 2017'에서 일본 삼경인 마쓰시마의 절경을 조망할 수 있는 온천지로 평가되어, 일본 전역에서 많은 분이 투표하며 절경 부문 3위로 선정되었다. 현재, 7개 숙박 시설에서 마쓰시마 온천을 즐길 수 있으며, 무료 족욕장에서 마쓰시마만의 절경을 바라보며 힐링하는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클럽, 바다로 세계와 이어지는 마쓰시마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灣) 클럽(Club of the Most Beautiful bays in the World)은 1997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설립되었으며, 프랑스 반느시에 본부를 둔 비정부 기구(NGO)로서 유네스코와 연계 활동을 하고 있다. 활동 방침으로는 만을 살린 관광 진흥이나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마쓰시마만도 아름다운 경관을 지키기 위한 환경 보전 활동을 하고 있다.

가맹 만에서는 한국의 여수만, 프랑스의 몽산미셸만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과 함께 마쓰시마만이 아름다운 만으로 선정되었다. 일본 국내 만에서는 도야마현 도야마만(富山県 富山灣), 교토부 미야즈만·이네만(京都府 宮津灣·伊根灣), 시즈오카현 스루가만(静岡県 駿河灣), 나가사



키현 사세보만(長崎県 佐世保湾)이 가뭇하고 있어, 아름다운 만을 순례하는 여행도 추천한다.

마쓰시마 가는 길

교통수단도 좋아 현청 소재지인 센다이시(仙台市)에서 전철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한다. 마쓰시마정에는 JR센세키선·도호쿠 본선 총 7개 역이 있어 미야기현 각지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인근에 센다이 공항이 있어, 인천 공항으로 가는 직항편이 주 4일(월, 수, 금, 일) 운항하고 있다. 센다이 공항에서 마쓰시마까지 직통버스를 매일 운행하고 있으며, 요금은 편도 1,000엔으로 예약하지 않아도 된다. 버스 안에서 Free Wi-Fi 이용이 가능하며, 차내 관광 음성 가이드도 한국어로 제공되어 불편 없이 탑승할 수 있다. 이 직통버스는 세계유산인 히라이즈미(平泉)까지 연결되며, 일본

삼경 마쓰시마와 세계유산 히라이즈미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관광 관련 정보

관광지는 도보로 즐기기 좋은 아담한 시가지를 이루고 있다. 마쓰시마 관광부두 인근의 마쓰시마 해안 레스트하우스 안에 마쓰시마 관광안내소가 있다. 주 1일(매주 토요일) 한국어 응대スタッフが 있으며, 한국어 팸플릿을 상시 배치하고 있다. 거리에는 다국어 안내판도 있어 안심하고 관광을 즐길 수 있다.

또 마쓰시마정 공식 Facebook 'Visit Matsushima'에서는 방일 외국인 관광객 전용으로 마쓰시마, 미야기, 도호쿠의 핫한 정보를 업로드 하고 있으니 확인 바란다.

(집필: 마쓰시마정, 협력: CLAIR, Seoul)

2020년도 일본국정부 장학금 유학생 모집에 관한 안내 학부유학생(이공계) 모집

1998년 '일한공동선언'에 따라 2000년부터 시작된 '일한공동 이공계학부 유학생 사업'은 이공계열에 특출하게 우수한 자질 및 능력을 지닌 한국의 고등학생 등을 1년에 100명씩 일본의 국립대학교 이공계학부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1,924명의 유학생을 일본에 보내 왔지만, 2019년 일본 유학생을 마지막으로 본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다.

주한일본대사관에서는 일본의 이공계 학부 유학을 목표로 학습하고 있는 고등학생 등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2020년 일본 유학생부터 주한일본대사관이 실시하는 일본국정부 장학금 유학생(학부유학생) 제도를 통해 이공계 분야를 모집하고자 한다.

시험과목과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kr.emb-japan.go.jp/itrtop_ko/index.html

문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유학생담당실

02-765-3011~3013(내선145), yuhak@so.mofa.go.jp

2020년도 일본국정부 장학금 유학생(학부유학생) 모집 선고(개요)

모집 선고의 흐름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유학생 모집 및 제차 선고 실시 후, 합격자를 일본국 문부과학성에 채용 후보자로 추천. 추천자는 문부과학성이 실시하는 제2차 선고에 합격하면 채용이 정식으로 결정된다.

- 모집 개시 : 2019년 4월경
- 제1차 선고 : 필기시험 5월 말~6월 초, 면접시험 7월
- 제1차 선고 합격자 발표 : 2019년 9월경
- 제2차 선고 합격자 발표 : 2019년 12월~2020년 1월경

모집인원

새롭게 이공계 분야의 모집을 시작하며, 채용 후보자 추천 예정 인원

(주1)은 아래와 같다.

- 문과계 10명, 이공계(신설)(주2) 25명, 의학·치학계 2명

(주1) 수험자의 자질·능력 등에 따라 상기 인원대로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주2) 이공계 지원자는 원서 제출 시에 이공계(전자전기계, 기계계, 토목건축계, 화학계, 이학계(수학, 물리, 화학)) 또는 이공계(농학계, 보건학계, 생물학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공계 A와 B는 시험과목이 상이한 관계로 동시에 지원할 수 없다)

시험과목

- 문과계 : 일본어, 영어, 수학
- 이공계A(전자전기계, 기계계, 토목건축계, 화학계, 이학계(수학, 물리, 화학)) : 일본어, 영어, 수학, 물리, 화학
- 이공계B(농학계, 보건학계, 생물학계) : 일본어, 영어, 수학, 화학, 생물
- 의학·치학계 : 일본어, 영어, 수학, 화학, 생물

(주3) 이공계A·B 및 의학·치학계 수험자에 대해서는, 수학 및 이과(물리, 화학, 생물) 과목의 점수를 중시하여 제차 선고 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의사항 상기 내용은 일본국정부의 2019년도 예산 성립을 전제로 한 현시점에서의 예정이며, 정식 모집 요강은 2019년 4월경 발표 예정이다.

일한문화교류기금 공모, 2019년도 초청 펠로십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은 일한 상호 간의 이해를 촉진하며, 양국의 학술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국의 우수 연구자를 초청하여 연구·조사 등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특히 차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중견·젊은 세대 연구자의 체재 연구를 지원하는 초청 펠로십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 연구 분야는 일한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일한 협력이 기대되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다. 모집 요강, 신청서 등은 일한문화교류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jkcf.or.jp/projects/fellowship>
<http://www.jkcf.or.jp/projects/fellowship>

모집기간 11월 12일(월)부터 12월 21일(금)(마감일 필착)



송부처 및 주소 응모서류는 신청자의 소속 기관(직장) 주소(소속이 없으면, 한국 내 거주지 주소)에 따라 주한일본대사관(공보문화원), 주부산·제주주일본국총영사관 중 해당하는 곳으로 보낸다.

- 주소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일 경우
⇒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우:48792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18)
- 주소가 제주특별자치도일 경우
⇒ 제주주일본국총영사관(우:6308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로 335)
- 주소가 그 이외 지역일 경우
⇒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우: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J-POP 부르고, 일본도 가져!
제16회 일본가요대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이 주최하는 일본가요대회가 올해로 16회를 맞이한다. 일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만 45세 미만의 한국인이거나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본선 입상자에게는 협력 기관의 푸짐한 부상이 주어진다. 본선에는 3일간에 걸친 예선을 통해 15팀이 결정되며, 일본 아티스트인 미코토(MIKOTO)의 스페셜 축하 공연도 진행된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자신 있게 도전해 보기 바란다.

- 예선** 2019년 1월 11일(금) 14:00~
2019년 1월 12일(토)~13일(일) 11:00~
- 본선** 2019년 1월 26일(토) 16:30~18:30
-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JAPAN MUSIC CULTURE EXPORT(JMCE)
- 협력** DK KOREA, ANA, YAMAHA MUSIC KOREA, Nikon, SHINYOUNG WACOAL INC., (주)DREAM BOY,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호텔그룹, Grace Inertational, Tokyo Panya, MAGES., 5pb., C&L MUSIC, 아이와

응모

- 기간** 2018년 11월 15일(목)~12월 20일(목)
*예선은 원칙적으로 1절 노래만으로 심사하며 반주는 예선, 본선 모두 가라오케를 사용한다.
일반공개로 진행되는 본선에서는 모니터를 볼 수 없으며, 전곡을 부르게 된다.
- 방법**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kr.emb-japan.go.jp>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접수 jmic@so.mofa.go.jp

본선 진출자 발표 2019년 1월 17일 (목)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자세한 사항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

문의 02-765-3011(내선 110,143) jmic@so.mofa.go.jp








미코토 MIKOTO

아티스트로 활동하며 여성 취향의 콘텐츠 작품과 남자 성우에게 악곡을 제공하는 작곡가로 활약 중이다. 그 외에도 SKE48, 노기자카 46, Lead 등의 J-POP 아티스트, BTOB, SHU-1 등의 K-POP 아티스트에 악곡을 제공하고 있다. 2014년 시츄에이션 CD - 메이지 흡혈기담(明治吸血奇譚) '초키야사(月夜叉(Rejet))'의 테마곡 'Accepted Blood' 삽입곡 '초키유키 노 오토 (月雪ノ音)'로 5pb. Records에서 메이저 데뷔했다.

2017년 스마트폰 게임과 애니메이션이 융합된 새로운 프로젝트 레이어드 스토리즈 제로(レイヤードストーリーズゼロ)에서 시이나 링고(椎名豪)와 함께 주제가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2018년 10월부터 TBS, BS-TBS에서 방송된 TV 애니메이션 'BAKUMATSU' 오프닝 테마곡 Spiral Maze를 네 번째 싱글로 발매했다. 미코토가 만들어 내는 멜로디와 노래 그리고 재능은 그 누구도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온리 원의 독창성을 보여준다.

<http://5pb.jp/records/mikoto/>

2019 신년일본문화소개전 일본의 전통문화전 & 설풍경전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는 신년일본문화소개전을 개최한다. 올해는 '일본의 전통문화전'과 함께 일본의 설을 체험할 수 있는 '일본의 설풍경전'으로 새해 첫 손님을 맞이할 예정이다. 전통의상인 기모노부터 생활문화 중 하나인 다도, 종교적 의식에서 시작된 마쓰리(축제), 유럽 인상파 화단에 큰 영향을 준 다색판화 우키요에 등 다채로운 일본의 전통문화를 실물과 인형, 그림 등으로 소개한다.

신년일본문화소개전의 빼놓을 수 없는 코너인 특별공연으로 '일본의 기예 다이도게쇼 제5탄'이 마련된다.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3명의 퍼포머가 코믹 퍼포먼스, 현란한 저글링, 전통 다이도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맞이한다. 또 설에 빼놓을 수 없는 떡매치기, 12간지가 그려진 카드에 소원을 적어 가는 에마 체험, 새해의 길흉을 점쳐보는 오미쿠지, 새해 첫 붓글씨를 쓰는 가키조메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일본차 워크숍, 초등학교 일본문화체험교실, 일본영화 상영회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일시 2019년 1월 11일(금)~22일(화) 10:00~17:30분(일요일 휴관)

장소 및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문의 02-765-3011(내선 120, 123) <http://www.kr.emb-japan.go.jp>

워크숍 : 어서오세요! 일본차(日本茶)의 세계로

한국에서 일본차 대사로 활동 중인 오기타 준코(尾形純子) 씨와 함께 일본차의 매력을 알아보는 워크숍.

일시 1월 16일(수), 17일(목) 14:00~15:3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회의실

일본의 기예 다이도게쇼 제5탄

다이도게 퍼포머 3명이 펼치는 놀라움과 재미와 웃음의 세계.

일시 1월 17일(목) 19:30~21:00, 18일(금) 14:00~15:3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떡매치기

일본의 전통식 절구와 떡매를 이용해 관람객과 떡을 찧어보고 나누어 먹는 행사.

일시 1월 11일(금) 15:00, 12일(토) 15: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초등학교 일본문화 체험교실

일본문화 강의, 퀴즈, 일본문화소개 영상 감상, 일본의 설놀이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일시 1월 11일(금), 12일(토) 14:00, 14일(월) 11:00, 1월 19일(토) 11:00/14:00, 1월 21일(월), 22일(화) 11: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회의실



2018 히라가나 가타카나 디자인 콘테스트 수상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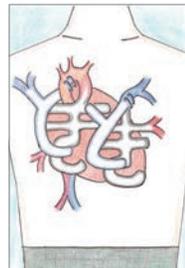
한국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본어 문자(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모티브로 창작한 디자인 콘테스트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주최로 개최되었다. 전국에서 3,963점이 응모했으며, 디자인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40점의 입상작 가운데 일부를 소개한다. 또한, 12월 5일(수)부터 11일(화)까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실크갤러리에서 입상작 전시회도 진행된다.

일시 12월 5일(수) ~ 11일(화)(주말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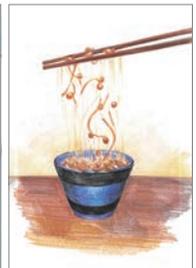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후원 dots리현, (주)모리사와코리아, 일본자치국제문화협회 서울사무소, 기타큐슈공항,

(주)사이일본어학원, INPAINTER GLOBAL, 일본어저널, 한국일본어교육연구회



고등학교 대상_최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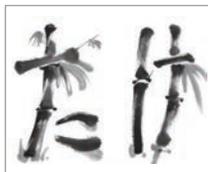
중학교 대상_김민서



고등학교 최우수상_이동현



고등학교 우수상_김아현



고등학교 우수상_신동현



중학교 최우수상_최민서



중학교 우수상_김나은



중학교 우수상_정예지



제5회 한일포토콘테스트 수상작 발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지방자치단체, 기업, 행정기관과 함께 8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제5회 한일포토콘테스트'를 개최했다.

한국 국적자는 '일본의 매력'을, 일본 국적자는 '한국의 매력'을 테마로 한 사진을 온라인을 통해 응모하여, 우수작품 응모자에게 공보동최 및 후원 기관이 제공한 상품을 수여하고, 수상작품을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전시하는 사업이다.

양국 국민이 사진을 통해 상대국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문화·인적교류 촉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관광 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콘테스트에는 약 2,500명이 약 4,500점을 응모했다.

많은 응모작 가운데 수상작으로 선정된 24개 작품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전시된다.

수상작 전시 12월 14일(금)~12월 20일(목)

시상식 12월 15일(토)



아키타현상 함박눈이 내리던 어느날... / KIM TAEYONG



오кина와현상 자마미섬의 밤하늘 / KIM KYONGLAE



나가사키현상 여섯 자장보살 / SHIN YESUNG



시즈오카현상 거짓말 같았던 후지산 / JUNG KISOO



아오모리현상 핫코다산의 무빙 / SHIN OKJAE



EPSON상 변치 않는 천년의 밤 / TAGUCHITOMOE



Nikon상 화실 속 노부부 / JEONG MISUN



ANA상 하동의 부부송, 언제나 함께 / YASUI MIWA



JAL상 하이! 도모다치! / CHANG EUNHYE



한국방문위원회상 저마다의 비 / IMAI YOSHIMI



한국방문위원회상 동대문의 꿈 / NISHIKIORI SHUHEI



Canon상 별빛이 내린다 / SIM JIHUN



INTERPARK상 안개 속의 청의 호수 / CHO YOUNG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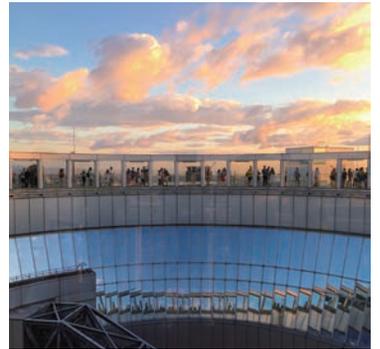
금호아시아나상 다이센산 은하수 / KIM HYUNGJIN



INPAINTER GLOBAL상 함께 만드는 축제 그리고 추억 / CHOI WONSEOK



주한일본대사관상 자전거를 탄 노인 / SEO JUNHYUK



주한일본대사관상 낭만적인 오사카의 하늘과 사람들 / KIM SUKYOUNG



CLAIR상 태풍이 지나간 뒤에 / JO DEOKRAE



주한일본대사관상 도시의 오로라 / YOO INHA



특별상 빛나는 시라카와고! / KYEONG GYUSEON



특별상 대기 / CHA SUNGMIN



특별상 뒷모습 / OH JIYEOL



특별상 메타세콰리아길에서 아버지와 딸 / HOSAKA AKEMI



특별상 하루카스의 창 / LEE KWONBYUNG



宮城 OPEN!!!
2018.10.7, 2018.10.8

가깝고도 먼 이촌나라 일본, 대자연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한겨울 겨울여행을 유학 여행기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遊學)보고서

딱 봐도 나 같은 사람 기죽이는 현란한 차림새. 사실 나는 걷는 일을 무척 쉽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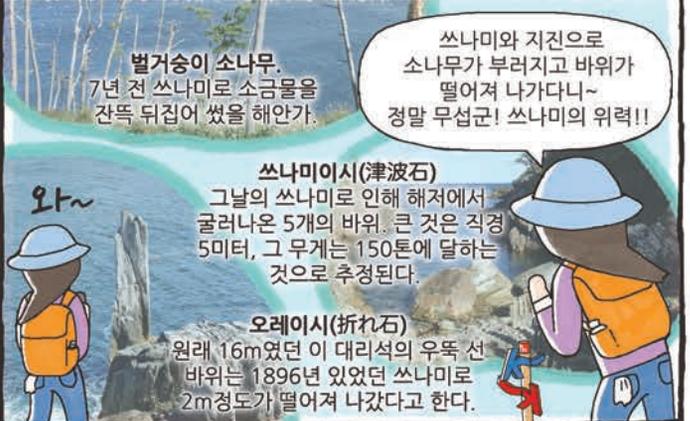
등산화에 등산 스틱까지... 아니~ 뭐 히말라야에 오르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유난들이실까?

자네, 그 신발로 걸을 수 있겠어?

음매~ 기죽어~

규슈올레 몇 코스 걸어봤다고 자만감으로 툭툭뭉친 나는야 어서쁜 올레꾼~ㅋ

이번 미야기올레 첫 코스로 게센누마 가라쿠와(氣仙沼唐桑) 코스와 오키마쓰시마(興松島) 코스 이렇게 두 개의 코스가 개장되었는데, 두 곳 모두 2011년 3월에 있었던 쓰나미 지진의 피해지역이다.



벌거숭이 소나무.
7년 전 쓰나미로 소금물을 잔뜩 뒤집어 썼을 해안가.

쓰나미와 지진으로 소나무가 부러지고 바위가 떨어져 나가다니~ 정말 무섭군! 쓰나미의 위력!!

쓰나미이시(津波石)
그날의 쓰나미로 인해 해저에서 굴러나온 5개의 바위. 큰 것은 직경 5미터, 그 무게는 15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레이시(折れ石)
원래 16m였던 이 대리석의 우뚝 선 바위는 1896년 있었던 쓰나미로 2m정도가 떨어져 나갔다고 한다.

이날 울긋불긋 출지어 걷는 500명 가량의 올레꾼들의 행렬은 무척 장관이었는데, 시골마을의 어르신들이 구경 나오셔서 손을 흔들어 주시며 정답게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트레킹에 적합하지 않은 운동화들 신은 탓에 급기야 새끼 발가락에는 물집이 생겼고 발바닥이 아파와 결국 일행에서 뒤처지게 되었다.



설사약, 변비약... 다른 비상약은 다 챙겨왔는데 물집이라는 북병 때문에 설마~ 도중에 하차하게 되는 거 아냐? 올레길 완주는 완전...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무렵,



곤니치와~ 안녕하세요~ 곤니치와~

점심은 마을 주민들이 정성껏 싸주신 도시락과 따뜻한 굴국에 피로가 싸악~! 신선한 사과 한 조각이 화룡정정! 걷다 걷다 지칠 때 쯤 시원한 뽕잎차 한잔~!

마을의 특산품으로 마을 주민들의 격려가 든든한 활력소가 되네~



호로록~
한그릇 더!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다리 관절에 직접 무리가 가지 않도록 몸을 살짝 비스듬히 틀어서 걸어요.



지팡이를 이용해 몸무게를 분산시켜 걸으면 걷기가 쉽습니다~

아... 그래서 지팡이가 필요한 거구나!

절룩거리며 걷는 내 모습이 안쓰러우셨는지 어느 이름모를 올레 고수님이 다가와 들려주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평온한 바닷가 마을 어촌민박에서 주인 아저씨가 잡은 신선한 해산물이 한상 가득~ 하루의 피로를 덜어 주는 바닷가의 만찬이다.



아까 유명한 탤런트분이 다정하게 사진 찍어 주시던데? 누구?

정말 이 유명한 탤런트분이 이번에 저희랑 같이 걸으셨다구요?

히~ 하하하하
보글보글~

첫 코스는 그럭저럭 완주했지만 다음날이 걱정되었다. 경 힘들면 둘째 코스는 무리하지 말고, 좀 쉬는기는 하지만 중간에 빠져나와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을 청했다.



드르렁

나도 내일은 그 멋진 탤런트랑 사진 찍을꼬야~
음냐음냐 구루지마~